

Vol.

77

2022년 12월

해양환경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조치 채택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 개정안 채택 예정

■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 이후 교훈점 학습을 통해 영향평가 절차 보완에 노력 기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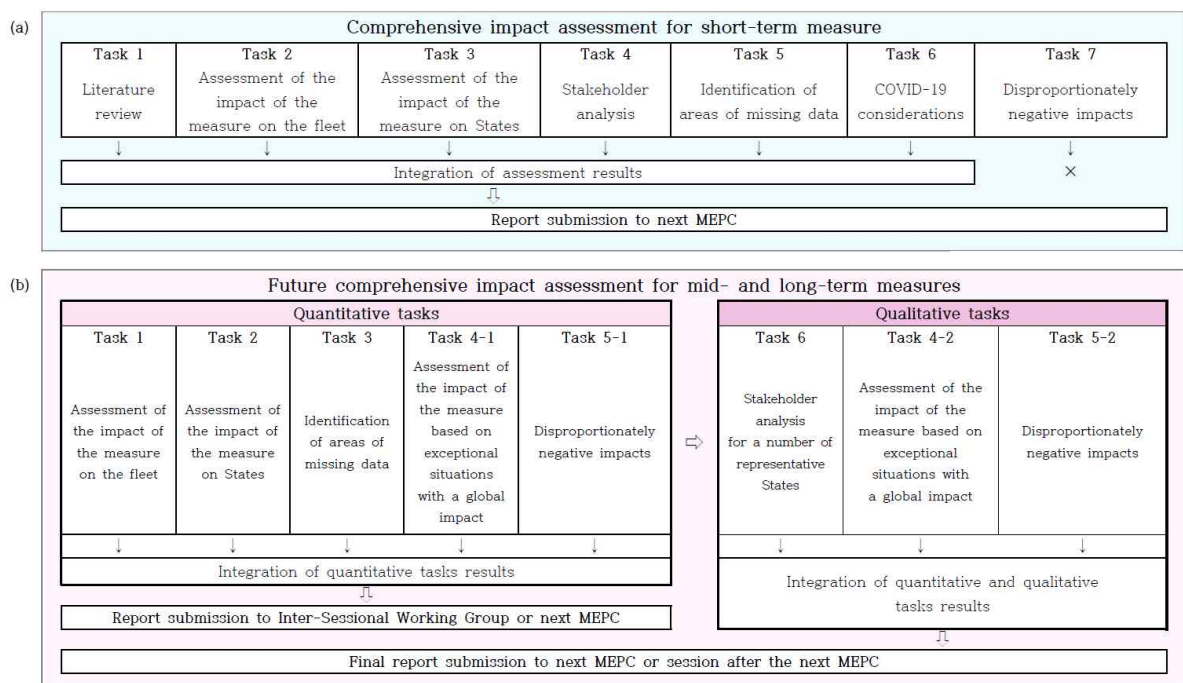
- ▶ IMO는 2018년 제72차 MEPC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전략은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a),b)}
 - 군소개발도상국 및 저개발도상국들은 초기전략에 명시된 의욕수준(level of ambition)과 비전(vision) 설정과 달성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초기전략이 영향평가 과정이 포함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초기전략이 채택됨
 - 제74차 MEPC는 초기전략에 근거하여 2019년 후보 조치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서 (MEPC.1/Circ.885)를 채택함
 - * 절차서는 영향평가를 위한 4가지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1)조치를 제안하는 회원국의 자체적인 초기 영향평가, 2)초기영향평가 기반의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문서 제출, 3)의견문서에 대한 종합토론, 4)운영 위원회 및 사무국 주도의 종합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함
- ▶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영향평가 절차서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들을 분류하여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b),c)}
 - 사무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문헌검토, 2)선대에 미치는 영향평가, 3)국가에 미치는 영향평가, 4) 이해관계자 분석, 5)누락데이터 영역 식별, 6)코로나19 고려사항, 7)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같이 7가지의 과업을 구성하고 과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함
 - *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쿡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라이베리아, 미얀마,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과 같은 18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업은 세계해사대학(WMU), DNV, UN무역개발회의 (UNCTAD), Starcrest,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함
 - 과업 중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위원회에서 군소 개발도상국을 위한 예외조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 ▶ MEPC는 2022년 동안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절차서 검토를 통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 특별전문가워크숍을 추가하여 교훈점 학습을 위해 노력함 ^{d)}
 - 사무국은 11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ISWG-GHG) 이전에 영향평가 방법론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함

- 회원국들은 교훈점 학습결과를 마치고 절차서 개정안(MEPC.1/Circ885/Rev.1)이 제79차 MEPC에 제출되어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ISWG-GHG 13, 회원국들은 MEPC 78차에서 도출된 초안과 대한민국이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영향평가 개선안 도출에 협력함 ^{e),f)}

- ▶ 대한민국은 설문조사, 특별전문가 워크숍과 11차 ISWG-GHG에서 영향평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정량적 과업과 정성적 구분을 구분하여 직렬적 수행방식과 구체적인 과업 기간을 제안함
- 단기조치 종합영향평가는 7개의 과업들이 병렬적으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회원국 및 과업 수행기관 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영향평가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음
- 대한민국은 그러한 교훈점을 바탕으로 정량적 과업들과 정성적 과업들을 구분하고 정량적 과업 수행 후에 정성적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정량적 과업 수행결과를 고려한 정성적 과업이 이루어져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영향평가 진행 구조를 제안함
- 더불어 영향평가 수행기간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의견대로 6~9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과업 각각 순수하게 3개월씩 보장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과업 수행기관에서 3개월 내에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함

〈그림 1〉 향후 중장기 조치를 위한 영향평가의 절차적 개선(안)



자료 : ISWG-GHG 13/2

영향평가 절차 개정안은 MEPC 79차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승인될 예정

- 11차 ISWG-GHG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고려한 영향평가 절차 개정안을 도출하여 MEPC 79차 (22.12.12~12.16)에 승인을 요청함^{a)}
- ISWG-GHG 의장은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회원국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MEPC 79차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향후 중장기 조치 채택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논쟁이 많은 부분은 최소화하여 개정안을 도출함

향후 중장기 조치 채택을 위한 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제도 개선이라는 대외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국내 해사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대내적인 차원에서도 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영향평가는 단순한 절차를 명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후보조치들에 대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정확성, 일관성,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조치 채택에 따른 국내 해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영향평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해사분야 이해관계자들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구상해볼 수 있음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 자료

- a) IMO,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RESOLUTION MEPC.304(72)
- b) IMO, PROCEDURE FOR ASSESSING IMPACTS ON STATES OF CANDIDATE MEASURES, MEPC.1/Circ.885
- c) IMO,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of the short-term measure approved by MEPC 75, MEPC 76/7/13
- d) IMO, DRAFT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EVENTY-SEVENTH SESSION, MEPC 77/WP.1/Rev.1
- e) IMO, DRAFT PROCESS AND METHODOLOGICAL ELEMENTS TO COMPLEMENT THE PROCEDURE FOR ASSESSING IMPACTS ON STATES OF CANDIDATE MEASURES, MEPC 78/WP.5/ANNEX 2
- f) IMO, Procedural improvements to the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of IMO GHG reduction measures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ISWG-GHG 13/2
- g) IMO, Draft report of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ISWG-GHG 13). ISWG-GHG 13/WP.1